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시대에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던 독서 방식은 음독(音讀)이었다. 그런데 18세기 조선에서 문에 부흥이 일어남에 따라 정보와 지식의 양이 늘어나면서 음독의 한계가 드러났다. 음독은 독서 행위의 의식을 강조했기에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정보 습득의 새로운 방안으로 ㉠ 간서(看書) 독서법, ㉡ 질서(疾書) 독서법, ㉢ 초서(抄書) 독서법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간서 독서법은 눈으로 책을 읽는 방법으로, 지식의 빠른 습득에 용이한 속독(速讀)이 가능한 방법이다. 간서 독서법에 따르면, 독자는 글을 읽는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며, 책의 기호를 순차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읽어 나갈 수 있다. 간서 독서법에서는 개인성이 강조된다. 그래서 간서 독서법은 독자가 책을 비판적으로 읽게 된 계기이자, 독서가 개인적 행위로 정착하게 된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이 방법은 창작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출판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다.

㉡ 질서 독서법은 초서 독서법의 기틀이 된 방법으로, 책을 읽는 장소마다 필기도구를 마련해 놓고 뜻을 깨우칠 때마다 잊지 않도록 빠르게 쓰는 독서법이다. 여기서 '뜻을 깨우친다'는 것은 경전을 읽을 때 경전에 대해 회의를 갖고 스스로 의미를 찾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질서 독서법은 학문을 인식하는 방법론이자, 책의 문자와 어구의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책의 전반적 이해를 위한 독서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질서 독서법에서 '쓰는' 행위는 독자의 주관성을 중심으로 경전의 해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질서 독서법은 독서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저술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초서 독서법은 여러 책을 읽으며 중요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거나 이를 독서 카드로 만들어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요약과 정리를 위한 독서법으로, 책을 짓고 출판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 독서법에 대해 정약용은 '학문에 보탬이 될 내용만 추려내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건너뛰며 읽는 것이기에 책을 효과적으로 빨리 읽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정약용은 초서 독서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의 경중을 구별하고 취사선택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경중의 구별과 취사선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문이나 사물에 대한 뚜렷한 관점이나 주관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정약용은 책을 읽으며 깊이 고찰하고 정밀한 뜻에 대해 생각한 것을 메모해야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서 독서법을 통해서는 글을 읽는 속도의 조절이 쉽지 않다.
- ② 질서 독서법에서는 글을 읽을 때 글 내용에 대한 보편적 해석을 중시한다.
- ③ 간서 독서법과 초서 독서법에서는 책의 기호들을 순차에 따라 읽는 것을 강조한다.
- ④ 18세기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이 적극 활용한 독서법들은 저술활동 또는 출판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 ⑤ 질서 독서법과 초서 독서법은 독서 카드를 만들어 읽은 글의 중요 내용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2.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책의 전반적인 이해가 취사 선택 없이 책을 읽는 능력을 길러 주기 때문이다.
- ② 단순한 요약 및 정리 중심의 메모가 학문에 대한 관점을 세우게 만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 ③ 별다른 의미 없이 필기를 하던 방식이, 기준에 따라 정형화한 독서 카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④ 주관성을 중심으로 한 경전의 해석이 책을 빠르게 읽는 방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 ⑤ 학문이나 사물에 대한 독자의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만 글에 대한 주도적인 읽기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3. ㉠~㉢과 <보기>의 ㉣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율곡 이이는 독서의 목적을 성현의 뜻을 파악해 도리를 실현하는 데에 두었다. 그래서 그는 독서 행위를 일종의 자기 수양으로 보고, ㉣ 자기 수양의 독서법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독서를 할 때는 경전을 비롯한 여러 책을 널리 읽고 깊이 생각하되 자신의 견해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아울러 옛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며,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한다.

- ① ㉠은 ㉣와 달리, 책에 대한 비판적 읽기가 가능했겠군.
- ② ㉡은 경전의 어구 해석에 얽매이지 않았겠지만, ㉣는 경전의 어구 해석에 얽매었겠군.
- ③ ㉢은 경전 해석 활동보다 외부 출판 활동을, ㉣는 자의적 해석 활동보다 자기 수양 활동을 중시했겠군.
- ④ ㉢은 독서 활동 시 독자의 관점을, ㉣는 독서 활동 시 저자의 관점을 강조했겠군.
- ⑤ ㉢과 ㉣는 모두, 다양한 책들을 두루 읽고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고찰하는 읽기 활동을 중시했겠군.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인세법이란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법인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세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과표구간을 ㉠ 나누어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법인세의 세제개편은 과표구간 단순화와 세율 인하를 통해 진행된다. 이때 과표구간 단순화는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단순화하는 것을 뜻하고, 세율 인하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을 뜻한다.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세와 함께 국가 재정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세목에 속한다. 그래서 법인세의 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파장은 경제상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법인세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실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인지, 법인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법인의 주주들인 부유층에게 주로 귀착되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한다. 각 쟁점에 대한 판단은 법인세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인세의 성격에 대한 견해로는 먼저, 법인세를 법인 내의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법인에 투입된 노동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반면 투입된 자본에 대하여 이자가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인 내의 자본에 과세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그들에 따르면, 법인 내의 자본에 과세할 경우 자본의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기업이 자본사용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지만, 지속적인 과세로 인해 ㉡ 장기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규모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법인세 부과에 따라 법인이 생산한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므로 법인에 대한 수요의 일부가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비법인 부문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법인 부문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의 부담이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인세를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및 투자 촉진 정책까지 고려하면 이미 법인 내 자본에 대하여 충분한 대가가 지급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그들은 법인세가 법인 내 자본이 아니라 법인의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갖는다고 여긴다. 그들에 따르면, 법인세는 법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법인세율을 인하시킨다고 해서 민간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율을 인상시킨다고 해서 국내 자본이 효율성 높은 법인 부문에서 효율성 낮은 비법인 부문으로 이동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법인 부문에 자본을 투입한 사람들이 주로 부유층이라는 전제하에 소득 재분배를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편, 과도한 법인세 부담률로 인해 국제 경쟁에서 불리해진 국내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로 본사를 ㉢ 옮길 수도 있다. 따라서 다국적 자본의 이탈 방지 및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거나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4.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낮추면 국가 재정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 ② 개별 법인에는 법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법인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③ 국내에서 법인세의 부담이 줄어들면 다국적 자본의 이탈이 가속될 수 있다.
- ④ 법인 부문의 자본이 비법인 부문으로 이동하게 되면 전체적인 경제의 효율성이 감소한다.
- ⑤ 법인세 부담이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전가될 경우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미비해진다.

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인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 ② 소득 재분배 효과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 ③ 과세부담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 ④ 법인 내 자본에 대하여 이자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 ⑤ 노동 공급이 법인 부문에서 비법인 부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법인세 인하의 대표적인 찬성 근거는 낙수효과이다. 낙수 효과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대기업이 성장하면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서민 경제가 좋아지는 효과이며 이로 인해 경제가 발전한다면 줄어들었던 세수가 회복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의 낙수효과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정부의 세입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적어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세 감면의 투자 유인 효과가 크지 않으며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으면서 성장으로 이어질 실물 투자를 크게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① 법인세와 고용 효과의 관계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군.
- ② 기업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세금 이외의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겠군.
- ③ 조세 감면으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쌓이는 것은 국가 재정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군.
- ④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은 법인세 인상은 정당한 소득 재분배를 야기한다고 보겠군.
- ⑤ 낙수효과가 나타나려면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보다 기업의 성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커야겠군.

7. 문맥상 ㉠과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구분(區分)하여 | ㉡ 전가(轉嫁)할 |
| ① 구분(區分)하여 | 전가(轉嫁)할 |
| ② 분담(分擔)하여 | 이전(移轉)할 |
| ③ 분담(分擔)하여 | 이전(移轉)할 |
| ④ 분쇄(粉碎)하여 | 교환(交換)할 |
| ⑤ 분담(分擔)하여 | 교환(交換)할 |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28년 ㉠ 그리피스의 실험은 DNA라는 유전 정보를 포함하는 물질에 대해 밝혀지게 되는 토대가 되었다. 그리피스의 실험은 폐렴쌍구균을 이용해 형질 전환을 발견한 실험으로, 그리피스는 R형, S형의 폐렴균을 쥐에 주사해 그 성질이 변하는 과정을 밝혀내었다.

그리피스는 첫 실험에서 균의 세포 표면이 거친 R형 균과 부드러운 S형 균을 각각 쥐에 주사하였다. 이때 R형 균은 숙주의 공격을 받아 쉽게 죽지만, S형 균은 숙주의 공격에도 죽지 않고 폐렴을 유발한다. 그 결과 R형 균을 주입한 쥐는 생존했으며, S형 균을 주사한 쥐는 폐렴이 발생하여 죽었다. 물론 죽은 쥐에서는 살아 있는 S형 균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열처리한 S형 균을 쥐에게 주사했는데, 그 쥐는 멀쩡히 살아 있었다. 마지막 실험에서는 열처리한 S형 균과 살아 있는 R형 균을 섞어 쥐에게 주사했는데, 그 쥐가 죽는 결과가 나왔다. 이 실험을 통해 그리피스는 S형 균의 형질은 S형 균이 파괴되었다고 남아 있고 R형 균이 이것을 받아들여 S형 균으로 변환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즉, S형 균과 R형 균 간에 ‘어떤 것’을 주고받아 그 성질이 변하게 되는 과정이 전개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그리피스는 이를 형질전환이라 하였다.

1944년 유전학자 에이버리는 그리피스의 실험을 보다 정교하게 통제하여 열처리한 S형 균을 탄수화물, 단백질, DNA로 구분하여 R형 균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DNA가 형질전환의 원인임을 밝혀내었다. 이후 유전학자들은 DNA가 유전 물질이라고 여기게 되었으며, 1952년 허시와 체이스는 박테리아를 숙주 세포로 하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허시-체이스 실험을 통해 DNA가 유전 물질임을 증명해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DNA가 담고 있는 유전 정보가 생체 내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밝혀내지 못하였다. 이런 와중에 1958년 크릭은 DNA의 유전 정보는 RNA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되며, 다른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 센트럴 도그마 가설을 내놓았다. 이 가설에 따르면, 세포가 특정 단백질을 필요로 할 때 염색체에 있는 DNA 분자 가운데 적당한 부위의 염기 서열이 RNA로 복사된 후 이 RNA 복사체에 의해 단백질 합성이 지시된다. 박테리아에서 사람에 이르는 모든 세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전 정보를 발현하게 된다. 즉, 해당 가설에 따르면 생물학적 정보 흐름은 “DNA → RNA → 단백질”이므로,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에게 어떤 특정한 3차원 구조 정보를 전달해서 그 단백질의 구조를 바꾸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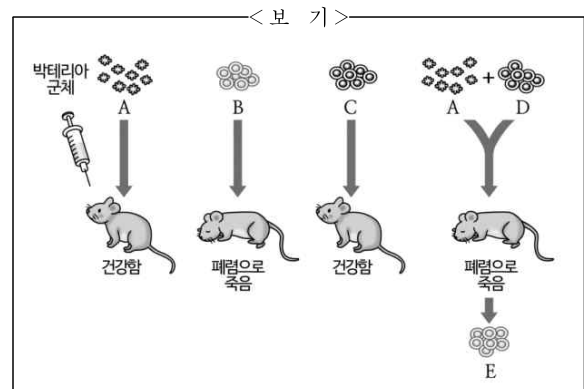
센트럴 도그마의 첫 단계는 DNA에서 DNA로 정보가 전달되는 ㉢ 복제이다. 복제는 기존 DNA에서 새로운 DNA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때 이중 나선 구조 형태인 DNA는 자기 스스로를 똑같이 복제한다. 다음 단계는 DNA 유전 정보들 중 일부를 RNA로 전달하는 ㉣ 전사이다. 즉, 전사는 DNA에서 DNA와 비슷한 구조의 핵산인 RNA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DNA가 디옥시리보오스를 뼈대로 사용하는 대신 RNA는 리보오스를 사용하고, DNA가 티민(T)을 염기로 사용하는 대신 RNA는 우라실(U)을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 전사가 진행될 때는 mRNA뿐만 아니라 RNA 중합효소 등이 작용된다. mRNA는 RNA 중에 전사에 관여하는 RNA를 말한다. RNA 중합효소는 전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사 과정에 RNA 중합효소가 DNA의 특정 부위에 붙

으면 DNA 두 가닥이 벌어지며 사슬이 풀린다. RNA 중합효소가 이동하면서 DNA의 염기 서열에 상보적으로 염기를 붙이며 mRNA를 만들고, mRNA는 세포핵 밖으로 빠져나와 세포 내 소기관인 리보솜으로 이동한다. 마지막 단계는 리보솜에서 mRNA의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결합하여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 번역이다. 즉, 번역은 RNA에서 단백질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리보솜은 자체적으로 rRNA를 가지고 있는데, rRNA 단위 3개마다 하나의 아미노산이 지정되어 있다. DNA에서 전사된 정보가 mRNA 형태로 리보솜에 이르면, 리보솜은 이 mRNA를 기준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rRNA 조각들을 가져다 붙인다. 따라서 mRNA의 배열 순서대로 아미노산이 배열되고, 그렇게 mRNA를 따라 늘어선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든다.

8.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그리피스는 쥐 실험을 통해 DNA가 형질전환의 원인임을 밝혀냈다.
- ㉡ 폐렴균의 표면은 거칠수록 생명력이 강해 유전적 복제 속도가 빠르다.
- ㉢ 어떠한 세균은 형질전환의 과정을 통해 다른 세균의 속성을 지닐 수 있다.
- ㉣ 박테리아와 달리 사람의 몸에서는 RNA에 의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 ㉤ 리보솜에서는 RNA 중합효소가 DNA에 상보적으로 염기를 붙여 DNA를 전사한다.

9. <보기>는 ㉠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A 균은 B 균보다 활발하게 진행하여 생명체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겠군.
- ㉡ B 균과 C 균은 숙주의 공격을 받아 쉽게 죽어 버리는 균에 해당하겠군.
- ㉢ 실험체인 쥐의 상태로 보아 B 균과 C 균은 모두 죽은 R형 균에 해당하겠군.
- ㉣ C 균과 D 균은 동일한 것으로, 어떠한 결합에도 생명체의 방어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군.
- ㉤ E 균은 R형 균과 S형 균이 상호작용한 것으로, B 균과 같은 작용을 하겠군.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된 DNA가 똑같은 두 개의 DNA로 복제된다.
- ② ㉡에서는 DNA의 염기 서열과 일치하지 않는 RNA를 생성하는 활동이 진행된다.
- ③ ㉢에서는 mRNA가 만들어지며 여기에는 DNA의 유전 정보의 일부가 담긴다.
- ④ ㉣에서는 하나의 rRNA에 세 개의 아미노산이 지정되어 배열된다.
- ⑤ ㉣에서는 mRNA의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들이 배열되어 단백질 형성을 한다.

11. ㉠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 ㄱ. 리보솜을 갖고 있지 않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리보솜을 이용하여 증식한다.
- ㄴ. 효모에서 Rqc2라는 단백질은 DNA 없이 아미노산의 일종인 알라닌과 트레오닌을 만든다.
- ㄷ. 광우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프리온 단백질은 정상 단백질과 결합하여 이를 변형시키는 성질이 있다.
- ㄹ.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레트로바이러스는 RNA에서 DNA를 합성한 뒤, 숙주의 DNA에 끼어 들어간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20세기의 영화이론가들은 언어학과 기호학을 바탕으로 영화를 언어적 텍스트에 등가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시기의 영화이론은 주로 영화의 의미작용을 분석하여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영화가 낳는 의미작용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영화가 관객의 신체에 주는 다양한 영향들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① 21세기의 영화이론가들은 정동 이론을 기반으로 영화가 시청각적 질료로 이루어진 만큼 신체에 언어로 환원되기 어려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영화이론가들은 영화적 경험과 체험이 가지는 정동적, 감정적 차원을 비기표작용적, 혹은 비인지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춘 정동 이론에 따라 설명하려 하였다. 특히 그들은 영화 평론 과정에 스피노자의 정동 이론을 적극 활용하였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정동이란 다른 몸체와의 접촉으로 인해 일어난 몸체의 행위역량의 변이를 의미한다. 이때 몸체란 인간과 비인간을 모두 아울러 동일한 존재로 취급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인간 및 비인간 몸체들은 이 세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변화를 겪게 된다. 여기서 변화는 곧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행위역량이 변화하는 것으로, 행위역량이 증대되는 변이는 기쁨이고, 행위역량이 약화되는 변이는 슬픔이다.

정동은 몸체가 정동을 발생시킨 원인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따라 능동적 정동과 수동적 정동으로 나뉜다. 능동적 정동은 정동을 발생시킨 원인에 대한 적합한 앎이 수반되는 경우이다. 적합한 앎이란 공통 개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것에 도달하면 이 세계의 모든 몸체들과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수동적 정동은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채로 발생하며 외적 몸체가 자신의 몸체에 가한 효과에 대한 지각만이 수반된다.

스피노자는 각 몸체에는 고유한 특징적 관계들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각 몸체들이 어떻게 합쳐져서 기쁨이나 슬픔을 발생시키는지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존재가 가진 특징적 관계가 어떤 것이고 그것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스피노자는 인간 존재가 행복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존재자들과 역량강화적 변이에 이르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몸체들의 어떤 집합적 배치가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깨달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존재자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시도를 ㉠ 거쳐야만 터득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천하는 앎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나)

들뢰즈는 영화가 일종의 사유 방식, 즉 인간의 관습과 전통으로부터 벗어난 특별한 사유 방식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들뢰즈는 영화의 클로즈업 기법이 만들어내는 정감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대상이나 이미지를 확대하는 기법인 클로즈업은 인물의 내면적인 감정을 미묘하게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등 영화에서 인물의 정감을 나타내는 데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들뢰즈는 클로즈업이 이미지의 확대로 인해 주위의 배경을 비가시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서 정감을 강하게 부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들뢰즈에 따르면, 클로즈업은 인물이 놓여 있는 지평으로 간주되는 배경을 없애 버린다. 만약 어떤 영화의 모든 장면에서 클로즈업을 사용한다면 '관객'은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데에 답답함을 느끼고, 정확한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행위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명시적인 이해의 단서들이 클로즈업을 통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클로즈업 과정에서 대상을 매우 근접해서 촬영하면 그 대상은 삼차원적 입체감이 약화된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극단적인 클로즈업은 공간적 부피감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평면화를 야기하며 지각 작용 자체에도 공간 구성이 약화되는 효과를 준다. 그 결과 관객은 거리, 부피 등에 관한 단서가 부족한 이미지에서 삼차원적 공간감을 느끼기 어려워지므로 행위의 좌표로서의 공간적 배경이 사라지는 듯한 효과를 느끼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들뢰즈는 클로즈업에 의해 좌표 설정이 불가능해지는 공간을 무규정적 공간 또는 불특정한 공간이라 규정하고, 이 공간에서 정감 이미지가 출현한다고 보았다. 들뢰즈는 클로즈업 외에도 서사구조를 비선형적으로 전개하거나 사건의 진행을 파편화시키는 등의 기법 역시 관객이 연속적이고 전체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하기에 무규정적 공간이 창출되어 정감 이미지가 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감 이미지는 들뢰즈가 규정한 현대영화의 특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들뢰즈에 따르면, 현대영화의 이미지는 단단하게 엮인 이야기 구조를 형성하지 않고 분산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상투성으로 묶인 이미지들은 기계적 반복을 통해 재생산된다. 그래서 특정 사건이나 이미지가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려 티브 구조의 생략이 가능하고, 현실적 이미지와 잠재적 이미지 역시 서로 교환 가능하다. 아울러 영화의 배경은 더 이상 어떤 특권적인 장소에 특정한 목적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장소가 동등한 임의의 장소가 된다. 한편, 현대영화의 파편적 이미지들은 그 자체로서 새로운 줄거리를 구성하지 못하므로 가장 단순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가령, 많은 영화에서 정부 기관, 연구소, 미지의 집단 등에 대한 음모 자체가 줄거리를 대신한다.

1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영화이론의 변화 양상을, (나)는 근대영화 기법과 현대영화 기법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정동 이론 패러다임의 순차적 적용 과정을, (나)는 정감 이미지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정동 이론에 대해 스피노자의 주장을, (나)는 정감 이미지의 발생에 관한 들뢰즈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는 정동 이론의 역사에 대한 스피노자의 견해를, (나)는 현대영화의 한계에 대한 들뢰즈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몸체들이 상호작용하는 이유를, (나)는 카메라의 기계적 특징에 따른 영화 이미지의 비규정성을 제시하고 있다.

13.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영화에서 카메라가 포착한 잠재적 이미지는 실제적 이미지와 교환이 가능하다.
- ② 클로즈업 기법이 적용되는 영화는 인간이 세상을 사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
- ③ 클로즈업 기법은 때때로 관객이 영화의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데에 방해할 수 있다.
- ④ 영화 속 시간을 왜곡하여 사건의 진행을 파편화시킴으로써 무규정적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 ⑤ 현대영화에서 관객의 정감을 발생시키는 파편적 이미지들은 자체적으로 줄거리를 구성할 수 있다.

14. ㉠의 관점에서 (나)를 해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객이 영화를 볼 때는 다른 존재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겠군.
- ② 인간은 영화가 발생시키는 정동의 원인에 대한 적합한 앎을 갖지 못하겠군.
- ③ 클로즈업을 관객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지의 확대라는 단순 기법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이미지의 기표작용적 요소에만 집중한 결과겠군.
- ④ 영화의 정감 이미지는 시각적 요소로만 이루어져 언어로 환원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겠군.
- ⑤ 영화 감상은 관객이라는 몸체와 영화의 이미지라는 몸체가 서로 행위역량이 증대되면서 비기표작용은 제거되겠군.

15.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수영을 처음 배우는 A는 물이라는 존재와 상호작용하기 시작한다. A가 처음 물과 접촉하면 두려움 때문에 기쁨보다 슬픔을 더 많이 느낄 것이다. A가 수영을 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은 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터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A가 수영을 배우는 과정에서 아직 완벽히 터득하지 않았음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때 A가 얻은 기쁨은 수동적 정동에 의한 것이다.

- ① A는 공통 개념에 도달하지 않고도 행위역량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A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물과 A가 접촉하면 양쪽의 행위역량은 모두 변화할 것이다.
- ③ A가 수영을 완벽히 터득한 이후에는 역량강화적 변이에 이르는 방식으로 물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 ④ A는 수영을 배우는 과정에서 꾸준한 실천을 통해 물이라는 몸체와 직접 상호작용하며 적합한 앎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A가 수영을 완벽히 터득하지 않았음에도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물이 자신의 몸체에 가한 효과를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캐나다의 철학자 마수미는 스피노자의 정동 이론을 기반으로 정동과 감정을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동이란 특정 몸체나 의미작용적 맥락에 귀속될 수 없는 강도(intensity)를 뜻한다. 이때 강도는 질적인 변화 없이 분할 가능한 길이, 면적, 부피 등의 성질인 연장(extension)과 구분되는 것으로, 질적인 변화 없이는 분할 가능하지 않은 색채, 기온, 시간, 속도 등의 성질을 말한다. 한편, 감정은 특정 개체가 소유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감정의 발생은 의미작용적 맥락에 의해 예측되고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은 소유되고 인지된 강도, 또는 포장되거나 정규화된 정동에 해당한다.

- ① 영화 속의 무규정적 공간은 감정을 소유할 특정 개체를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겠군.
- ② 스피노자가 주장한 몸체의 행위역량은 양적인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분할 가능하겠군.
- ③ 이미지의 기표작용적 요소나 인지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영화적 기법을 분석해야겠군.
- ④ 들뢰즈가 주장한 영화 이미지에서 정감이 출현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이 갖는 목적성을 통해 의미작용적 맥락에 의한 예측과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겠군.
- ⑤ 들뢰즈가 주장한 클로즈업 기법은 연장이 아닌 강도에 해당하는 정동을 발생시키는 데에 유리하겠군.

17.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학생들은 마을 회관을 거쳐서 학교 후문에 도착했다.
- ② 특별히 거칠 문제가 없는데도 그는 테스트 자체를 두려워했다.
- ③ 배는 먼저 가장 큰 섬을 거칠 후에 차례로 그다음 섬을 향해 갔다.
- ④ 공장의 모든 생산품들은 반드시 품질 검사관들의 손을 거쳐야만 했다.
- ⑤ 그 동아리는 신입생 발표회를 거칠 신입생들만 정식 회원으로 인정해 주었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전에 김진옥이 화수암에서 밤낮으로 독서하더니 뜻밖에 난리를 당하며 부모를 뒤흔들고 급히 집에 돌아오니 집이 다 비었는 지라. 망극함을 이기지 못하여 슬픔을 머금고 또한 난을 피하여 ㉠ 산중에 들어가 하늘께 빌어 왓.

“부모 있는 곳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통곡하며 수목 사이를 두루 살펴 모친을 찾되, 끝내 아무 흔적도 없으니 망극함을 이기지 못하여 거리로 내려 방황하며 슬피 통곡하더니, 때는 봄 삼월, 보름 무렵이라. 사면에 백화 만발하여 풍경이 아름다운데, 날이 저물도록 지향 없이 가더니 해는 서쪽 못에 지고 달은 동쪽 고개로 떠오르거늘, 잔나비 휘파람과 두견새가 슬피 울어 사람의 마음을 더욱 복돋우는지라. 진옥이 부모를 생각하고 눈물을 뿌릴새, 한 도사가 꽃나무 속으로 청려장을 이끌고 곁에 와 앉으며 이르되.

“㉡ 공자는 어떤 아이완대 깊은 산중에 홀로 앉아 슬퍼하느뇨?”

진옥이 도사를 보니 손에 꽃날 검을 들고 허리에 밝은 달 장식을 찻으니 범상한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일어나 재배 왓.

“소자는 청주 땅에 살았으나 난중에 부모를 잃고 지극히 슬퍼하나이다.”

도사가 왓.

“그대 집이 없어 거리로 방황치 말고 나를 따라감이 어떠하뇨?”

진옥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몸을 일어 재배 왓.

“㉢ 대인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면 어찌 물과 불 속인을 피하겠나이까?”

이에 도사를 따라 한 고개를 넘어가며 좌우를 살펴보니 청산은 겹겹이요, 맑은 시내는 한 골짜기로 흐르더라. 몇 리쯤 가니 몇 칸 안 되는 초가가 소나무와 대나무 사이에 은은히 보이는 곳에 푸른 학과 흰 학이 옥돌로 만든 섬돌 아래를 배회하고 비췌빛 공작이 스스로 오고 가며, 푸른 대나무와 푸른 소나무는 울울하여 산수화 병풍을 둘러놓은 듯하더라.

대문 위에는 ‘화산도사 별당’이라 적혀 있었더라.

도사가 진옥을 데리고 별당에 들어가, 음식으로 넉넉히 대접하고 왓.

“㉣ 힘써 학문을 늘려 좋은 때를 기다리라.”

하니, 진옥이 인하여 머물러 시와 책, 여러 사상가들의 책, 육도삼략 같은 병법서를 힘써 익히고, 칼 쓰고 말 달리는 법을 힘쓰니 일취월장(日就月將)하여 죽히 만군(萬軍) 중이라도 자유로이 다닐 만하더라.

어느 날 진옥이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눈물을 흘리니, 도사가 위로 왓.

“네 ㉤ 이곳에 온 지 오 년이 되리라. 배운 바 글과 무예의 재능이 출중하니 이제 나라에서 과거를 열어 쓸 만한 인재로 골라 나라를 돕는 인물로 삼으시려 하시나니, 네 나아가 과거를 보면 반드시 입신양명(立身揚名)하리니, 대장부가 그때를 만날지라, 어찌 깊은 산속에 묻히어 초목과 같이 늪으리오? 너는 바빠 나아가 공명을 취하여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부모를 찾아 영광을 돌리고,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부족함 없이 누리도록 하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진옥은 도사의 권유에 따라 산을 내려

와 여러 고을을 떠돌며 세상살이를 익히고 뜻을 가다듬는다. 어느 날 꿈에서 한 여인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곧 만나게 된다는 계시를 받는다.

소저가 다시 문 왓.

“그대는 뒤 집 자제며 부모를 잃었다 하니 그사이 어느 곳에서 생각하였으며 어찌하여 이에 이르시뇨?”

진옥이 혼연 대 왓.

“나의 부친은 존함은 ‘시광’이니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부상서에 이르러 황성에 계시고 생(生)은 ㉠ 화수암에 가서 글공부하더니 갑자년 호란을 당하여 양친을 잃고 내 또한 난을 피하여 산중에 들어가 화산 도사를 만나 제자 되어 학업을 배우며 세월을 보내더니, 천하가 태평한 후 들은즉 나라에서 태평과(太平科)를 보이신다 하고 각처 선비가 모다 황성으로 행하는지라. 선생이 또한 생(生)다려 ‘나아가 공명(功名)을 취하라.’ 하니 선생을 하직하고 경성으로 행하다가, 어제 ㉡ 낯산 주절에서 자더니 꿈을 꾸었는데, 한 집안에 이르니 그 집이 황홀 찬란한데 한 여자가 안채에서 걸어 나와 나를 반기거늘 정히 말하고자 하다가 공중에서 소리하되, ‘너의 양인(兩人)이 하늘이 정해 준 인연이니 이때를 잃지 말라.’ 하거늘, 다시 묻고자 하다가 잠을 깨니 꿈이 또렷하게 기억나 날 새기를 기다려 ㉢ 이곳에 이르러 보니 이 집과 산천의 모습 다 꿈에 보던 데와 같으며, 꿈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감히 여인의 옷을 벗고 남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왔더니, 뜻밖에도 소저를 만나 보니 꿈에 보던 바이라. 그러므로 낭자와 연분이 있는 줄 알래라.”

소저가 다 듣고 마음에 의심과 이상함을 느껴 왓.

“㉣ 군자의 말씀이 그러하오나 장차 어찌코자 하시나이까?”

생 왓.

“소생의 행색이 비록 큰 바다 위를 떠도는 떠돌이 풀 같으나 장부 한 마디 말은 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법이요, 하늘의 도리에 믿음을 두기에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니, 원컨대 낭자는 맑은 얼음 같은 마음으로 캐히 허하여 백 년을 함께할 인연을 맺어 주심이 어떠하시뇨?”

소저가 정색하여 왓.

“사마상여가 거문고를 타던 사랑이나 초나라 임금의 구름과 비의 사랑 이야기도 알거니와 담을 넘고 구멍을 파는 짓은 어른들이 금하는 일이라. 군자의 말씀이 거리의 버드나무와 담장 꽃같이 가벼워 보이오니, 이는 마땅히 따를 수 없사옵나이다. 곧장 돌아가서서 중매인을 보내 정식으로 청혼하십시오. 옳을까 하나이다.”

생이 소저의 여러 말들을 듣고 안색을 더욱 부드럽게 하여 왓. “생의 행색이 추풍낙엽(秋風落葉) 같은지라. ㉥ 마땅히 군은 약속을 맺어 중한 인연을 이룬 후 마음을 정할지라, 어찌 그냥 물러나리오? 낭자는 바다 같은 뜻을 깊이 생각하여 인연을 맺게 하소서.”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18.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장면 전환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연속적인 행위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의 긴박함을 부각하고 있다.

19.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김진옥이 난을 당한 부모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뵙고자 돌아온 공간이다.
- ② ㉡은 김진옥이 만 명의 군사 앞에서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펼쳐진 공간이다.
- ③ ㉢은 김진옥이 난을 피하다가 도사를 만나 학업을 배우며 세월을 보내던 공간이다.
- ④ ㉣은 김진옥이 꿈에서 본 집을 찾기 위해 경성으로 향하던 중 잠시 머문 공간이다.
- ⑤ ㉣은 김진옥이 꿈과 현실의 공간적 배경이 동일함을 깨달으면서, 인연이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물이 겪는 고통과 고독에 대해 연민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발화를 듣고 있는 이를 따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 단기적 해결이 아닌 장기적 성장을 준비하라는 조언을 전달하고 있다.
- ④ ㉣: 인물의 말을 신뢰함으로써 향후 계획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자신의 마음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전소설의 욕망 실현 모티프는 조력자의 지원을 받아 시련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는 보편적 인간 경험을 통해 구체화된다. 「김진옥전」에서 조력자는 주인공이 세속적 능력을 연마하여 공명을 이루도록 주체적 실천을 이끄는 한편, 운명적 계시를 매개로 인연을 성취하게 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를 통해 주인공의 욕망 실현은 단순한 개인적 서사를 넘어 인류 보편의 서사로 확장된다.

- ① 진옥이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것과 소저와 '백 년을 함께할 인연을 맺고자 하는 것은, 주인공의 욕망이 보편적 인간 경험을 통해 구체화됨을 드러내는군.
- ② 소저가 진옥의 요청을 듣고 '중매인을 보내 정식으로 청혼하'라고 당부하는 것은, 조력자의 지원을 받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③ 도사가 진옥에게 '공명을 취하'고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한 것은, 주인공의 욕망 실현이 개인적 목표를 넘어서 보편적인 가치로 확장됨을 드러내는군.
- ④ 도사가 진옥이 자신의 '별당'에서 학문과 무예를 '일취월장'하도록 도운 것은, 주인공이 세속적 능력을 연마하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이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⑤ 꿈속에서 여자가 '너의 양인이 하늘이 정해 준 인연'이라 전하였다는 것은, 조력자가 운명적 계시를 매개로 주인공의 인연 성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높으니 높은 산마루

㉠ 낮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굵이굵이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A]

[B]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C]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D]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E]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랑하랴.

여기 높으니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F]

- 조지훈, 「산상의 노래」 -

(나)

사릿발에 떠내려간 배 열흘 만에 찾았다고

날이 새면 덕적도로 배 찾으러 간다고

배 찾았시다 술 한잔 했시다

신이 났던 아랫집 동생이 등을 두드려 달란다

㉡ 코스모스 아래 쭈그러 앉아

소라 아빠는 내일 버섯장을,

튼튼한 그늘을, 만든다고 먼저 가고

등을 두드려 주지 않는 내가 야속하다고

어여 가라

잃었던 것 되찾으러 뱃길 세 시간

해발 제로의 길

작게 흔들려도 몸 전체가 흔들리는 배를 타고

아침 일찍 어여 가야 하니

등은 달빛이 두드려 주고 있으니

야속하다 말고

되찾을 것 있는 너는 어여 어여 가라 하고

㉢ 고욤나무 아래 서서

오래 바라다본 달빛 푸른 바다

잃었던 것 되찾는 황홀감

무엇 있었던 말인가 내겐

무엇이 있을 거란 말인가

찬 들국 향이여

내 마음의 덕적도는 어디에 있는가.

- 함민복, 「한밤의 덕적도」 -

(다)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 노랑게 뜸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꺼
멧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부
르튼 듯 탐스럽게 열리었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어 잎사귀마
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지었다.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꼼짝이 사랑하는 노
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 그중에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
사를 사다 층층이 테를 두르고 겹가지 샛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 붙이기도 하여 사층 나무도 되고 오층으로 된 나무도 있
다. 장미는 홍예문같이 틀어 올린 것도 있고 ㉣ 복숭아나무는
무슨 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도다도다 맺히었다. 노인은 가끔 안손님들까지 사랑 마
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구경시켰다. 구경하는 사람마다 희한
해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주인의 재공(才功)을 치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
르는 그 사층 나무 오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혜(一顧之惠)도 없이 되
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더 몇 배 아름다
게 보이기 때문이다.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
만 가위에 잘리고 철사에 묶이어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단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
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포기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
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졸작, 그러한 미완품이 있
을까?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자
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
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 이태준, 「화단」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교훈적 의미를 도출한다.
- ②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풍경을 묘사한다.
- ③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중심 대상에 대한 정서를 강조한다.
- ④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앞날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드러낸다.
- ⑤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여 역사적 사건에 대한 회고를 제시한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시에서 화자는 외부 사물에 자신의 내면을 투영하여 드러낸다. (가)에서 화자는 자연물과 교감하며, 산속에서 느끼는 고독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때 외부 환경의 변화는 화자에게 조화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내적 성숙에 이르게 한다. (나)에서 화자는 잃어버린 배를 되찾은 이윅을 바라보며, 그와 대비되는 자신의 공허를 자각한다. 이러한 자각을 계기로 스스로를 성찰하며,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갈망을 드러낸다.

- ① (가)에서 '나래 떨던 새별'에게 '숨으라'고 말을 건네는 것은, 밝아오는 아침을 맞이하는 화자가 고생했던 자연물과 교감하는 모습을 나타내는군.
- ② (가)에서 '산마루'에 화자가 '홀로' 있었지만 바라볼 '새들'이 나타난 것은, 화자가 고독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외부 환경의 변화를 나타내는군.
- ③ (나)에서 '동생'의 '등을 두드려 주지 않'으며 '어여 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잃어버린 배를 되찾았음에도 공허함을 감춰야 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는군.
- ④ (나)에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잃었던 것 되찾는 황홀감'을 떠올리는 것은, 공허를 자각하게 된 화자가 그러한 자신과 대비되는 감정을 떠올리는 모습을 나타내는군.
- ⑤ (가)에서 '사슴과 토끼'가 '짜릿순을 사냥'하는 것은 내적 성숙에 이르게 하는 조화로운 세계를, (나)에서 '찬 들국 향'은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갈망하는 모습을 부각하는군.

24. 이미지를 중심으로 [A]~[F]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나타난 '핏줄'의 황폐한 이미지는 [E]에서 '피리'의 예 이미지와 유사하게 연결되고 있다.
- ② [B]에 나타난 '종소리'의 성스러운 이미지는 [D]에서 '꿈'의 환상적인 이미지와 대응하고 있다.
- ③ [C]에 나타난 '꽃다운 하늘'의 화려한 이미지는 [A]에서 '아침'의 적막한 이미지와 대비되고 있다.
- ④ [D]에 나타난 '햇살'의 긍정적 이미지는 [F]에서 '웃자락'의 부정적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다.
- ⑤ [E]에 나타난 '가락'의 부드러운 이미지는 [B]에서 '가슴의 한복판'의 차가운 이미지를 억제하고 있다.

25.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의지하고 있는, ㉡은 글쓴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다.
- ② ㉠은 주변 풍경에 비해 위태로운, ㉡은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은 '노인'에 대한 놀라움을 심화하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의 고된 상황과 동일시되고 있는, ㉡은 글쓴이의 부담감과 동일시되고 있는 대상이다.
- ⑤ ㉠은 오랜 시간을 견디어 낸 화자를, ㉡은 화단에 대해 애정을 품고 있는 '노인'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대상이다.

2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동생'을 위해 찾아가게 된 장소이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동생'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장소이다.
- ③ ㉠은 '동생'의 겸손한 태도를, ㉡은 화자의 완고한 태도를 보여 주는 장소이다.
- ④ ㉠은 화자에 대한 '동생'의 야속함을, ㉡은 '동생'에 대한 화자의 미안함을 부각하는 장소이다.
- ⑤ ㉠은 '동생'이 신체적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장소이고, ㉡은 화자가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는 장소이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수필에서 글쓴이는 노인이 인위적으로 가꾼 화단과 자신이 본 자연 속의 화초를 대비하며, 이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기록하고 있다. 화단 속의 자연물들이 인위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반면에, 자연 속의 화초들은 자신에게 본연의 생명력을 일깨워 준다고 여기고 있다.

- ① 노인의 화단에 대해 '그의 공이 들지 않은' 데가 없다고 기록한 것은 현재의 화단의 모습이 인위적으로 꾸며졌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화단 속에 있는 '석류나무'를 '사충 나무 오충 나무'라고 기록한 것은 나무를 충충이 붙인 것에 대한 글쓴이의 감상을 제시한 것이겠군.
- ③ 노인에 대해 '재공을 치하지 못'하겠다고 기록한 것은 노인이 인위적으로 가꾼 화단 속의 자연물들이 자연 속의 화초들과 대비되기 때문이겠군.
- ④ 노인의 화단에 대해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라고 기록한 것은 화단의 풍경이 아름다움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봉선화가 노인의 '일고지혜' 없이 '되는 대로' 자라난다고 기록한 것은 본연의 생명력에 따라 자라나는 자연에 대한 경이로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겠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편집국 안에 들어섰을 때, 그가 두려워하고 있던 예측이 이젠 어쩔 수 없게 된 것을 최초로 그에게 느끼게 해 준 것은 국내(局內)에서 **심부름을 하는 계집애**의 표정에서였다. 여느 때 그 계집애는 만화가를 만화 속의 인물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탓인지 그를 보기만 하면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횡가 버리곤 하는 것이었는데, 그날은 제법 나뭇이 '안녕하세요'를 하고 나서 미소를 띤 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는 것이었다.

그것이 극히 잠깐 동안이었지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그에게 모든 걸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계집애가 자기를 올려다보던 맑은 눈 속을 살짝 스치고 가던 게 어찌면 연민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자 분노보다도 오히려 전신에서 맥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는 느끼면서 굳어진 얼굴로 문화부를 향하여 갔다.

자기들의 데스크 앞에 앉아 있던 몇 명의 **기자들**이 여느 때와 달리 유별나게 반갑게 **인사**할 때는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자기도 덩달아서 지금 **작별을 하듯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잠시 동안 그는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 수 없었다. 흐르던 시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공백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함께 그를 엄습했다. 그러고 있는 그를 문화부장이 구해 줬다.

"**오늘치 만화** 좀……." / 하면서 문화부장은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그는 당황해했다. 그가 짐작하고 있던 사태 속에서 문화부장의 지금 얘기는 불필요한 게 아닌가. 그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서류 봉투를 살그머니 좀 더 힘을 주어 끼면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빨개진 얼굴**을 손바닥으로 닦으며 말했다.

"그러오지 않았는데요."

말하고 나서 그는 금방 후회했다. 어찌면 자기의 짐작이란 게 얼토당토않은 게 아닐까……. 자기의 신경과민으로 자기는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나 문화부장의 다음 말은 그의 그러한 희망에 찬 기대를 산산이 부숴 버렸다.

"그럼 알고 계셨군요."

문화부장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그에게 말했다.

"**차나 한잔** 하러 가실까요?"

할 얘기가 있다는 암시를 그에게 주면서 문화부장은 그의 앞장을 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주 섭섭하게 되었습니다. 펍 오랫동안 함께 일해 왔었는데……."

다방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 문화부장은 그에게 말했다.

"저는 이형(李兄)을 두둔했습니다만…… 국장님도 이형의 만화에는 항상 칭찬을 하셨었는데…… 그…… 독자들이 자꾸 투서를……."

"아니 사실 재미가 없었지요.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화부장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게 미안해서 얼른 말을 받았다.

(중략)

마침내 문화부장이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아까, 제게 부탁할 일이?" / "예."

그는 얼른 말을 받았다.

㉠ "실은 이번에 제가 관계하던 신문과 관계가 끝났습니다."

㉡ "그렇게 됐어요? 요즘 이 선생님의 그림을 볼 수가 없어서 짐작은 했습니다만, 다투기라도 했던가요?"

㉢ "아닙니다. 미국 만화가들의 작품이 실릴 계획인 모양이더군요."

㉤ "아, 그렇군요? 요전번엔 저의 신문에도 교섭이 왔더군요."

㉥ "미국 만화가 측에서요?"

㉦ "네, 중개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었지요. 물론 한국 사람이었습니다만."

㉧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유, 말씀 마십시오. 우리 사장이 만화에 원고료 한 푼 내놓을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금 문화면을 몇 사람이 만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 사람입니다. 단 세 명이 메일 몇십 장씩 남의 것을 훔치고 번역해 내고 해야 합니다. 만화 연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 그는 절망을 느끼면서 말했다.

"이 선생님께서 절 찾아오신 이유를 조금은 짐작은 하겠습니까만 거의 백 퍼센트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런 곳에서 일하시려면 속 좀 상하시겠습니까."

"그런 신문사에서 견디 **낼** 사람은 저 같은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불만이 있으면 큰 소리로 외쳐 대고 화가 나면 잉크병도 내던져 버려야만 견딜 수 있지요. 만일 공생원처럼 참고만 있으면 자기 속에 썩어 버려서 하루도 못 참고 달아나 버리게 돼요."

"그럴 것 같군요."

"그럴 것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신문사 기자들 표정을 좀 보세요. 누가 자기를 건드려 주지 않나, 사흘이고 나흘이고 물고 늘어지겠다는 표정들이 아녘니까?"

"물랐는데요." / "다음에라도 좀 보세요."

그는 이 수다쟁이 **문화부장의 농지거리**에 진력이 나기 시작했다. **신경**의 한올 한올이 **곤두서서** 그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보통의 경우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모든 소음들—다방 안에서 나는 소리들과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이 모두 한꺼번에 살아서 그의 귓속으로 밀려들어 그의 머리는 터져 버릴 듯했다.

- 김승옥, 「차나 한잔」 -

28. 밑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편집국 계집애는 평소처럼 '그'를 보고 횡하니 지나쳤으나, '그'는 자신을 연민하는 태도로 받아들여 분노하였다.
- ② 문화부장은 '그'의 만화를 지지하였으나, 독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 ③ '그'는 문화부장에게 만화 연재를 부탁하고자 하였으나, 문화부장은 미국 만화가를 내세워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 ④ 미국 만화가의 중개인은 문화부장의 신문사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작가 측의 반대로 만화 연재는 무산되었다.
- ⑤ 문화부장은 신문사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나, 이를 드러내지 못한 채 참고 살아온 자신을 뒤늦게 후회하였다.

29. 「차나 한잔」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을 유보하려는 정중한 제안으로, 인물 간 거리감이 점차 해소되는 방향을 암시한다.
- ② 긴장을 완화하려는 일시적 대응으로, 대립 국면의 전환 가능성을 예고하는 지점으로 제시된다.
- ③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양상으로, 인물 간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④ 갈등의 본질이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으로, 인물 간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정리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예고된 국면이 구체적 사건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인물이 처한 위기가 본격화되는 기제로 기능한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부탁의 정당성을 마련하는 발언으로, ㉢를 통해 그 상황이 개인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와 ㉣에 나타난 인물의 태도를 고려하면, 표면적으로는 관심을 보이는 듯하나, 상황을 개선하려는 실질적 의지는 드러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③ ㉤은 ㉣를 듣고 상대의 소극적인 반응에 실망하여, 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이나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로 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 ④ ㉦는 ㉢에 대한 사실적 응답이면서도, 상대가 예측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드러내주는 발화임을 알 수 있다.
- ⑤ ㉧은 ㉦의 설명에 대한 상대의 대응을 묻는 질문으로,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얻으려는 기대가 반영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차나 한잔」에서는 인물의 성격이나 인물이 처한 상황의 분위기를 부각하기 위해 심리 상태를 직접 진술하기보다는 표정과 말투, 행동 등 외현적 요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인물과 일정한 서술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심리를 단정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서사적 객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전개될 상황을 암시하는 효과를 지닌다.

- ① 「문화부장」의 「오늘치 만화」 요구에 「땀」이 「땀」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외현적 반응은 불안을 직접 진술하지 않고 드러낸 것으로, 긴장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부각하고 있군.

- ② 「문화부장의 농지꺼리」에 「신경」이 「곤두서」는 「그」의 모습은 인물의 감정을 묘사한 것으로,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할지 망설인 것과 관련이 있군.
- ③ 스스로를 「그런」 신문사에서 「전더 뉘」 사람이라 지칭하는 「문화부장」의 말투는 자기 과시적 성향을 외현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군.
- ④ 「기자들」의 「인사」에 「작별」을 하듯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그」의 행동은 체념을 직접 표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포착한 것으로, 서술적 거리를 유지하여 정서를 객관화하고 있군.
- ⑤ 「심부름」을 하는 계집애가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는」 행동은 인물이 회피하고자 했던 현실을 직감하게 하는 외현적 요소로서, 향후 전개를 암시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백로주 돌아들어 ㉠반구정을 돌아가니
장연(長烟)*은 일공한데 호월(皓月)은 천리로다
아이야 풍광이 이러하니 아니 놀고 어찌하리 <제2수>

굽어난 천길 푸른 물 올려보니 만길 벼랑
붉은 벼랑에 붉은 꽃이오 푸른 물에 흰 갈매기라.
홍화발 백구비하니 한흥(閑興) 계위 하노라 <제3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구로(鷗鷺)로 벼를 삼아
팔 베고 물 마시고 반구정에 누웠으니
세상의 부귀공명은 현 신인가 하노라 <제6수>

인적적 야심심(夜深深)한대 반구정에 누어시니
천심(天心)에 월도(月到)하고 수면에 풍래(風來)한다
아마도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얻은 이 나뿐인가 하노라 <제8수>

청산은 만고청(萬古靑)이요 유수는 주야류(晝夜流)라
산청청 수류류 그지도 없을시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산수같이 하오리라. <제11수>
- 신지, 「영언십이장」 -

* 장연(長烟) : 길게 드리운 저녁 연기.

* 홍화발 백구비 : 붉은 꽃이 피고 흰 갈매기가 날아감.

* 연하 : 안개와 노을.

* 일반청의미 : 보통으로 느끼는 자연의 참된 의미.

(나)

우리나라 소산들도 부끄럽지 않건마는
 타국 물화(物貨) 어울리니 백각전(百各廛)* 장할시고
 칠패(七牌)*의 생선전에 각색 생선 다 있구나
 민어 석어 석수이며 도미 준치 고등어며
 낙지 소라 오적이며 조개 새우 전어로다
 남문 안 큰 모전에 각색 실과 다 있구나.
 청실뇌 황실뇌 전시 홍시 조홍시며,
 밤 대추 잣 호도며 포도 정도 오얏이며,
 석류 유자 복숭아며 용안 협지 당채추로다

(중략)

구경 가자 구경 가자 승전(承傳) 놀음* 구경 가자
 북일영(北一營) ㉠ 군자정(君子亭)에 좋은 놀음 벌었구나
 눈빛 같은 흰 휘장에 구름 같은 높은 차일
 차일 아래 기름 종이 치고 마루 끝에 널판지와
 아로새긴 서까래에 각 영문(營門) 사촉롱(紗燭籠)을
 빈틈없이 달아놓고 쏘팔 같은 화초등과
 보기 좋은 양각등(羊角燈)을 차례 있게 걸어 놓고
 난간 밖에 춘화 가화 붉은 비단 허리 매어
 빙문진 유리병에 가득히 꽂아 놓고
 각색 총전 몽고전과 만화 등매 담방석에
 백동타구 옥타구며 백동요강 은재떨이
 왜 찬합 당 찬합과 아로새긴 교자상과
 모란병풍 영모병풍(翎毛屏風) 산수병풍 글씨병풍
 홍용사(紅絨絲) 구멍 뚫어 이리저리 엮어매고,
 별감의 거동 보소, 난반 별감 백여 명이
 맵시도 있거니와 치장도 놀라울사

- 한산거사, 「한양가」 -

* 백각전: 조선 시대 정부에서 관리하던 상점들.

* 칠패: 조선 시대 서울 서소문 밖의 시장.

* 승전놀음: 별감들이 중심이 되어 노래와 춤을 즐기던 놀이.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반어적 표현을, (나)는 영탄형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대비를 통해, (나)는 나열을 통해 주제 의식을 구현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색채적 대비를 활용하여 사물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설정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투영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지인들과 함께 기거하기를 원하는 장소이다.
- ②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를 실현했음을 확인하는 장소이다.
- ③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세상의 물정을 파악하게 되는 장소이다.
- ④ ㉠은 ㉡과는 달리,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자신의 유희적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장소이다.
- ⑤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현재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장소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후기 시가는 시상의 전개 방식에 따라 수렴과 발산이라는 두 방향성을 보여 준다. (가)는 자연 속 공간의 풍경과 시간의 연속성에 대한 성찰을 화자의 내면적 덕성으로 수렴하는 성향을, (나)는 번잡한 도시 경물에 대한 예찬을 통해 화자의 관심을 외부로 발산시키는 성향을 보인다. 이는 (가)는 시조라는 양식이 갖는 운율적 제약에 의해 시상이 응축되며, (나)는 가사라는 양식이 갖는 길이의 자유로움과 사물의 나열 방식에 의해 시상이 확산되는 특성과도 연결된다.

- ① (가)는 '연하로 집을 삼고' 바라보는 자연 속 공간의 풍경을 제시한 후, '세상의 부귀 공명'을 '현 신'으로 여기겠다는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시상이 외부에서 내부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군.
- ② (가)는 '청산'과 '유수'가 갖는 시간적 연속성을 본받아 '우리도 그치지 말아'라고 함으로써 자연의 속성을 내면적 덕성으로 수렴하려는 성향을 보이는데.
- ③ (나)는 '우리나라 소산'과 '타국 물화'가 어울리고 있는 '백각전'에 대해 '장할시고'라고 하여 번잡한 도시 경물에 대해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④ (나)는 '승전 놀음'과 관련하여 '흰 휘장'과 '높은 차일' 등에서 시작하여 '난간 밖'의 유리병과 실내의 온갖 '병풍' 순서로 경물을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관심이 내부에서 외부로 발산함을 알 수 있게 하는군.
- ⑤ (가)의 '이이야'와 같이 종장 첫 구를 운율적으로 제약함으로써 시상을 응축하고, (나)의 '각색 실과'의 구체적 예시를 '밤 대추 잣 호도며 포도 정도 오얏' 등으로 나열함으로써 길이의 자유로움을 통해 시상을 확산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주에 ○○ 한옥 마을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는 것 아시죠? (청중의 반응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들 알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한옥의 지붕 형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명칭 몇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화면을 제시하며) 보시는 것처럼, 지붕 중에서 가장 높고 수평인 부분을 용마루라고 합니다. 전면에서 볼 때 용마루 양 끝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내림마루라고 하며, 내림마루에서 최대 약 45도 각도로 추녀 쪽으로 뻗은 부분을 추녀마루라고 합니다.

한옥의 지붕 형태는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제시하며) 맞배지붕은 양면으로 경사를 이루는 지붕면이 있고 용마루와 내림마루로 구성된 지붕입니다. 즉, 맞배지붕은 건물의 전, 후면에만 지붕면이 있어서 측면에서 보면 마치 반쯤 펼쳐진 책을 세워놓은 것 같이 밑면이 없는 삼각형 모양입니다. 맞배지붕은 한옥의 지붕 형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양식이며, 양 측면에 추녀마루가 없어 간결미가 느껴집니다. 조선시대에 선대 왕들의 제사를 지낸 종묘의 지붕이 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면을 제시하며) 우진각지붕은 네 면에 모두 지붕면이 있고 용마루와 추녀마루로 구성된 지붕입니다. 우진각지붕은 맞배지붕과 달리 사방에 모두 지붕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후면에서 보면 사다리꼴 모양이고, 양 측면에서 보면 밑면이 있는 삼각형 모양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우진각지붕은 맞배지붕 이후에 등장한 지붕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요 문화재인 숭례문과 흥인지문의 지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팔작지붕은 우진각지붕 위에 맞배지붕을 올려놓은 것 같은 모습의 지붕입니다. (첫 번째 화면을 다시 보여 주며) 아까 본 그림이죠? 이처럼 팔작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를 모두 갖추고 있어 화려하고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팔작지붕은 한옥의 지붕 형태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나타난 지붕입니다. 팔작지붕은 주로 규모가 큰 법당이나 궁궐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의 근정전과 같은 궁궐 내의 주요 건물은 대개 팔작지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옥의 지붕 형태를 간략히 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발표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㉔ 청중의 질문을 듣고) 그렇지는 않아요. 경건하고 보수적인 분위기가 필요한 건물에는, (두 손끝을 모아 삼각형 모양을 만들며) 맞배지붕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유명 사학자의 말처럼 저의 발표 내용이 현장 체험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5.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명 대상을 일상적 소재에 빗대어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보완하고 있다.
- ③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언급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④ 발표 중간에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있다.
- ⑤ 명언을 인용하여 발표자가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36. 다음은 발표 중에 발표자가 보여 준 화면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면 1]은 건물에 화려하고 웅장한 느낌을 형성하는 지붕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 ② [화면 1]은 기본적인 지붕 형태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중요 명칭을 알려 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 ③ [화면 2]는 한옥에서 가장 오래되고 간결한 느낌을 주는 지붕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 ④ [화면 3]은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가 모두 존재하는 지붕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 ⑤ [화면 3]은 맞배지붕 이후에 등장한 지붕 중에 숭례문, 흥인지문에 사용된 지붕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37. 위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㉔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용도를 위해 여러 채의 건물을 지을 때는 세 가지 양식의 지붕을 골고루 사용하나요?
- ② 종묘처럼 권위가 있는 건물인데도 맞배지붕으로 지어진 것은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 ③ 주로 경치가 좋은 곳에 지어진 정자같이 육각형이나 팔각형 모양의 지붕도 팔작지붕인가요?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붕 형태가 점차 장식성이 강한 방향으로 변화해 온 까닭은 무엇인가요?
- ⑤ 어떤 건물의 특성상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중에서 특정한 지붕 양식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나요?

[38~42] (가)는 방송 대담의 일부이고, (나)는 대담을 시청한 학생이 쓴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범인임이 유력한 피의자의 얼굴을 포함한 신상 공개 문제가 최근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전문가 1: 헌법 27조 4항에 따르면, 피의자 및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범죄 용의자도 보호받을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흉악 범죄의 피의자라도 범인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이지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2: 피의자의 인권보다 사건 피해자나 그 가족의 심정, 더하여 일반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력 용의자의 얼굴을 모자나 마스크로 가려 주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TV에서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공권력이 범죄자를 더 보호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자: 범인임이 유력한 피의자의 인권은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문가 2: 원칙적으로 피의자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수사 기관이 공개하지 않으면 언론이 먼저 과감하게 공개할 필요도 있습니다.

진행자: 언론이 먼저 공개할 필요도 있다는 것에 대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1: 그건 언론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의자 가족이나 지인들같이 범죄와 무관한 사람에 대한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상 공개가 언론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범죄의 중요도와 무관하게 사람들의 공분을 산 사건의 피의자 신상만 공개될 가능성이 큼니다.

전문가 2: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으니 개인 SNS를 중심으로 정확하지 않은 신상 공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공신력 있는 언론이 먼저 나서서 공개하는 것이 이로 인한 해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진행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피의자의 얼굴을 포함한 신상 공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전문가 2: 범죄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재범이나 동종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범죄 행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자의 신상 공개로 인

해 흉악범죄가 최근 10년간 80% 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전문가 1: 말씀하신 것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나 연구 결과는 국내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0년에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성범죄의 경우 2000년 약 2만 건에서 2021년 약 3만 2천 건으로,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신상 공개 이전에 이미 범인이 검거된 경우가 많기에 실익도 거의 없었습니다.

(나)

TV에서 흉악 범죄의 유력한 피의자를 보여 줄 때, 피의자의 얼굴이 마스크나 모자 따위로 가려지거나 모자이크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 규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느끼게 한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신상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흉악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사회 안전망을 굳건히 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현재 얼굴 사진과 거주지 등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범죄자가 아닌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범죄자로 확정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도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면 무죄로 판결받더라도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 활동이 힘들어진다. 또한 범죄자의 얼굴을 비롯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 억지력을 지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거의 없으므로, 무죄가 될 수 있는 피의자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피의자가 범인임이 유력한 경우라도 신상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범인임이 거의 확실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실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신상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단,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흉악 범죄자의 경우, 재범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신상 정보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해야 한다.

38. 위 대담의 진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담 참여자의 발언 일부를 재진술하며 해당 발언자에게 보충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② 대담을 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주제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 ③ 대담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④ 구체적 쟁점을 제시하며 대담 참여자의 관련 발언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⑤ 대담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하며 대담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

39. 다음은 (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대담을 준비하며 쓴 메모의 일부이다. ㉠~㉣와 관련하여 계획한 내용 중 (가)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3점]

[전문가 1]	[전문가 2]
• 피의자도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 • 무분별한 신상 공개는 제삼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범죄자의 얼굴 공개는 범죄 억지력이 없음. ㉡	• 범죄자보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더 중요함. ㉢ •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아 사회적 공개가 이루어짐. ㉣ • 범죄자의 얼굴 공개가 범죄 억지력을 지님. ㉤

- ① ㉠: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해야겠군.
- ② ㉡: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난 뒤에 성범죄가 발생한 추이를 수치로 제시해야겠군.
- ③ ㉢: 일반인들의 경우 공권력이 범죄자를 더 보호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음을 지적해야겠군.
- ④ ㉣: 피의자의 신상을 사적으로 공개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야겠군.
- 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임을 지적해야겠군.

4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상대방의 견해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나열한 후, 주장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 ② [A]에서는 언론사에 의한 신상 공개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상대방의 견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에서는 일반적 원리를 언급하여 상대방의 진술을 일부 인정한 후, 그것과 다른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고 있다.
- ④ [B]에서는 수사 기관의 신상 비공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한 후,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언급한 후, 상대방의 견해가 지닌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1. (가)의 답화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1문단에서는 (가)에서 '전문가 1'이 언급한 법 조항을 활용하여, 법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② (나)의 2문단에서는 (가)에서 '전문가 2'가 언급한 일반인의 법 감정을 활용하여, 범인임이 유력한 피의자의 경우 신상을 반드시 공개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 ③ (나)의 3문단에서는 (가)에서 '전문가 1'이 언급한 피의자 신상 공개의 한계를 활용하여,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를 자제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 ④ (나)의 4문단에서는 (가)에서 '전문가 2'가 언급한 언론의 역할을 활용하여, 공신력 있는 언론이 앞장서서 범인임이 유력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 ⑤ (나)의 2문단에서는 (가)에서 '전문가 2'가 언급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된 자기 경험을 활용하여, (나)의 3문단에서는 (가)에서 '전문가 1'이 언급한 신상 공개 제도를 활용하여 신상 공개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42. <보기>는 (나)의 4문단의 초고이다. 4문단에 반영된 수정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통쾌함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실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상당수의 국가는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늘리고 있다. 단,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흉악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 정보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해야 한다.

- ① 문단의 내용상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을 삭제한다.
- ② 관용적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 ③ 신상 공개 논란의 대상자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④ 흉악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를 추가한다.
- ⑤ 신상 공개와 관련된 현행 제도를 수정할 것을 추가한다.

[43~45] (가)는 글쓰기를 위한 학생의 생각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생각]

요즘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아. 심지어 차도를 역주행하여 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행동들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야.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자전거 안전 교육을 내실 있게 시행하자'는 내용으로 ○○시 교통안전 교육 담당자에게 건의하는 글을 쓰려고 해.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 문제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의 ㉡ 해결 시급성을 지적한 뒤, ㉢ 건의 내용의 공식성과 ㉣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글을 작성해야겠어. 건의하는 글이 공식적인 글이니, ㉤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예상 독자에 대한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야겠어.

(나) [학생의 초고]

근래에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자전거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잦습니다. 2023년에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연도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평균 5,5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80명 안팎의 자전거 운전자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 안전 교육을 강화해 주기를 건의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車)'로 분류됩니다. 이는 주행할 때 원칙적으로 자동차에 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는 인도가 아니라 차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교통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전거 운전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 자전거 주행에 대한 안전 의식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안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 의식이 높아지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이며, 그 비용을 다른 곳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안전 교육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안전 교육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정작 안전 교육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안전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A]

43. (가)의 ㉠~㉤을 (나)에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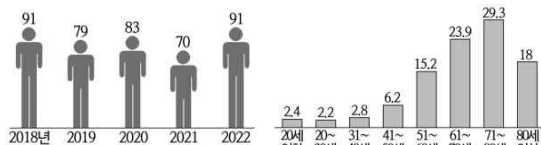
- ① ㉠: 매년 자전거 교통사고의 발생 수와 사망자 수를 제시한다.
- ② ㉡: 최근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 ③ ㉢: 안전 의식 강화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
- ④ ㉣: 자전거 안전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시한다.
- ⑤ ㉤: 인용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자전거 관련 법률을 언급한다.

44. <보기>는 학생이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통계 자료

1.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
2.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 수 구성비



자료: 교통안전공단, 단위: 명 자료: 교통안전공단, 단위: %

ㄴ. 신문 기사 발췌

(...) 여러 통계 자료를 살펴볼 때, 자전거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10년 새 약 2배로 늘었다. 그러나 현재 중·고등학생에 대한 자전거 안전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학생 M군(14세)은 “자전거를 탈 때 차를 조심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언제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운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

ㄷ. 전문가 인터뷰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나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교통 신호를 위반하거나 무단으로 인도를 달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를 당했을 때도 과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전거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고연령층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나타납니다.”

- ① ㄱ-2를 활용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라는 점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을 3문단에 제시한다.
- ② ㄴ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이후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3문단에 추가한다.
- ③ ㄷ을 활용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어겨 자전거 사고를 일으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을 2문단에 추가한다.
- ④ ㄱ-1과 ㄴ을 모두 활용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 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1문단에 추가한다.
- ⑤ ㄱ-2와 ㄷ을 모두 활용하여, 자전거 안전 교육이 가장 필요한 세대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을 3문단에 추가한다.

45. 다음은 (나)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지막 문단에는 글의 흐름에 어울리도록 자전거 안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실현될 때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구나.

- ①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자전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 ② 그러므로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자전거 안전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경로당이나 노인 대학 등을 직접 찾아가 고연령층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③ 고연령층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TV 같은 대중 매체를 이용한 안전 교육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 ④ 이런 점 때문에 자전거는 차도에서는 위험을 느끼면서 인도에서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면허와 같은 자전거 면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⑤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 이용자는 늘고 사고는 줄어들 것입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를 만드는 요소인 어근이 둘 이상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이러한 합성어는 품사 기준, 어근의 의미 관계,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나눌 수 있다.

[A] 먼저, 합성어는 품사 기준에 따라 합성 명사, 합성 동사, 합성 형용사, 합성 관형사, 합성 부사로 나뉜다. 가령, ‘밤낮’은 명사 어근 ‘밤’과 명사 어근 ‘낮’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명사이고, ‘여닫다’는 동사 어근 ‘열다’와 동사 어근 ‘닫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동사이다.

다음으로, 합성어는 어근의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로 나뉜다. 대등 합성어는 ㉠ 두 어근이 의미적으로 대등하게 결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논밭’은 ‘논’과 ‘밭’이라는 두 어근이 의미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종속 합성어는 ㉡ 뒤의 어근이 의미의 중심이 되고 앞 어근이 뒤 어근을 의미상으로 수식하는 경우이다. 가령 ‘돌다리’는 어근 ‘다리’가 의미의 중심이 되고 어근 ‘돌’은 의미상으로 ‘다리’를 꾸며준다. 융합 합성어는 ㉢ 두 어근이 결합할 때 두 어근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경우이다. ‘가시방석’은 어근 ‘가시’와 ‘방석’이 결합한 것으로, ‘앉아 있기에 아주 불안스러운 자리’를 뜻한다.

끝으로, 합성어는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뉜다. 통사적 합성어는 문장에서 단어를 자연스럽게 배열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합성어로, ㉣ 우리말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 방법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헌책’은 우리말의 통사적 구성 방식에 따라 관형사 어근 ‘헌’이 명사 어근 ‘책’ 앞에서 나타나 구성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반면 비통사적 합성어는 문장에서 단어를 배열하는 방식을 어기면서 만들어진 합성어로, ㉤ 우리말의 통사적 구성 방법과 어긋나게 형성된 경우이다. ‘썩쇠’는 용언의 어근 ‘썩-’과 명사 어근 ‘쇠’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통사적 구성 방식에 따르면 ‘썩은쇠’와 같이 나타나야 하지만, 전성어미가 생략된 채 어간 ‘썩-’과 명사 ‘쇠’가 직접 결합함으로써 통사적 구성 방법에서 어긋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썩쇠’는 비통사적 합성에 해당한다.

35.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더욱더’와 ‘죄다’는 모두 부사 어근과 부사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부사에 해당한다.
- ② ‘본받다’와 ‘앞서다’는 모두 명사 어근과 동사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동사에 해당한다.
- ③ ‘어느새’와 ‘온종일’은 모두 관형사 어근과 명사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부사에 해당한다.
- ④ ‘두세’와 ‘서너’는 모두 관형사 어근과 관형사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관형사에 해당한다.
- ⑤ ‘잘생기다’와 ‘뭇나다’는 모두 관형사 어근과 형용사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동사에 해당한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합성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합성어	뜻	어근
시골길	한적한 느낌을 주는 시골에 나 있는 길.	시골, 길
안팎	사물이나 영역의 안과 밖.	안, 밖
딱성냥	아무 데나 그어도 붙이 나게 만든 성냥.	딱, 성냥
목발	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발.	목, 발
피땀	애쓰는 노력과 정성을 이르는 말.	피, 땀

- ① ‘시골길’은 어근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는 ㉠에,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서는 ㉡에 해당한다.
- ② ‘안팎’은 어근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는 ㉠에,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서는 ㉢에 해당한다.
- ③ ‘딱성냥’은 어근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는 ㉡에,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서는 ㉡에 해당한다.
- ④ ‘목발’은 어근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는 ㉡에,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서는 ㉢에 해당한다.
- ⑤ ‘피땀’은 어근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는 ㉢에,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서는 ㉢에 해당한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학습 활동 〉

[학습 자료]

음절이란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로, 음절에는 반드시 모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음절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 ‘자음+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 ‘모음+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 ‘자음+모음+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학습 활동]

음절 유형과 관련하여 ㉠~㉣의 예를 세 개씩 찾아보자.

㉠ ㉡에 모든 음절의 모음이 이중모음으로만 구성된 것.

㉡ ㉢에 모든 음절의 모음이 단모음으로만 구성된 것.

㉢ ㉣에 모든 음절의 모음이 이중모음으로만 구성된 것.

㉣ ㉣에 모든 음절의 모음이 단모음으로만 구성된 것.

㉣ ㉣에 모든 음절의 모음이 이중모음으로만 구성된 것.

- ① ㉠: 야유, 여의, 외야
- ② ㉡: 괴리, 제주도, 쥐가오리
- ③ ㉢: 약, 영양염, 양육권
- ④ ㉣: 쇠뿔, 갈림길, 된장국
- ⑤ ㉣: 격률, 멸균, 병원균

38. <보기>의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선생님: 긍정문이 부정문으로 바뀔 때 시간 표현과 문장 종결법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시다.

- ㉠ 누나가 동생을 돌보다. ㉡ 동생이 누나를 쳐다보다.
㉢ 점심에는 밥을 먹자. ㉣ 그는 학생이다.
㉤ 영화는 예쁘다.

먼저, ㉠을 의지 부정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의 문장으로, ㉡를 능력 부정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의 문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 ㉠

선생님: 그럼, 이번에는 ㉢을 과거 시제를 갖는 긴 부정문으로, ㉣를 과거 시제를 갖는 부정문으로 바꿀 때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학생: ㉣

선생님: 맞아요. 끝으로, ㉤를 명령의 의미를 갖는 긴 부정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의 부정문이 '안 예쁘다'와 '예쁘지 않다'로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 ㉤

- ① ㉠: ㉠의 서술어를 '돌보지 않았다'로, ㉡의 서술어를 '쳐다보지 못했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② ㉢: ㉢의 '먹자'를 '먹지 말자'로 바꿀 수 있는데,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은 넣을 수 없습니다.
③ ㉣: ㉣의 '학생이다'를 '학생이 아니다'로 바꿀 수 있고, '아니다'에 '-었-'을 넣어야 합니다.
④ ㉤: ㉤를 명령의 의미를 갖는 긴 부정문으로 만들려면, '먹자'를 '먹지 마라'로 바꾸어야 합니다.
⑤ ㉤: ㉤를 부정문으로 바꾸면, 의지를 부정하는 표현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9. <보기>를 참고할 때, <자료>의 ㉠~㉧에서 인칭대명사와 조사의 결합 과정에서 동일한 조사가 결합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 자 료 > —

- ㉠ 내 이를 위(爲)하야 어엿비 너겨
(내 이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
㉡ 내 일후를 귀에 혼 번 드러도
(내 이름을 귀에 한 번 들어도)
㉢ 네 나를 돌디 아니하고
(네 나를 돌지 아니하고)
㉣ 네게 절 아니호리라
(네게 절 아니하리라)
㉤ 네 목숨도 보전 못하리니
(네 목숨도 보전 못하리라)
㉥ 뉘 아니 좇줍고져 하리
(누가 따르지 않으려 하리)
㉦ 뉘 말을 미더 듯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그디로록 드러다가
(누구 말을 곧이 듣고 젊은 남녀를 그토록 데려다가)

— < 보 기 > —

- <자료>에 나타난 인칭대명사와 조사
• 인칭대명사: 나, 너, 누(누구)
• 조사: 주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40~43] (가)는 텔레비전 방송 대담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시청한 사람들이 게시판에 쓴 댓글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최근 1인 가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교수님을 모시고 이에 대해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짧은 인터뷰 영상을 보겠습니다.

[인터뷰 영상]

기자: 혼자 사시면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1인 가구원: 우선 범죄에 노출이 될까와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이 아플 때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해야 하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자: ㉠ 1인 가구 시청자라면 인터뷰 내용에 쉽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처지라서 인터뷰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제 1인 가구 문제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 먼저 1인 가구의 현황과 증가 현상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 교수님께서, 다음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 □□ 기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의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30% 이상인 약 130만 가구에 이릅니다. 즉, 세 집 중 한 집 꼴로 1인 가구인 셈입니다. ㉢ 물론 여기에는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인 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개인 중심의 사회로 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 교수: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 이를테면 영화관이나 음식점에 1인 전용 좌석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여행 상품이나 혼밥, 혼술 등을 위한 조리 기구나 밀키트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1인 가구 수의 증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중시하는 사회적 현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시에서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의 1인 가구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시 1인 가구 포털'인데요, 이 포털의 장점, 보완점에 대해 박 교수님, 이 교수님 순서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교수: ○○시에서는 1인 가구 정책을 거주 지역, 연령, 성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작년 9월 '○○시 1인 가구 포털'을 오픈했습니다. 이 포털은 ○○시가 1인 가구를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 프로그램, 행사 등을 총망라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 지원이 단순 정보 제공 위주인 것은 문제입니다. '○○시 1인 가구 포털'도 주로 정책 소개, 행사 안내 등의 단순 정보 제공이 중심인 점은 아쉽습니다. ㉤ 그나마 주거, 질병 일자리 정보 제공 프로그램은 다른 포털과 차별되는 부분으로, 1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포털 내용 중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기적으로 포털 내용

을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군요. 여러분도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지금 방상으로 보이는 ㉠ ㉡ ㉢ 시 홍보 팸플릿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실시간 게시판인 '시시콜콜'에 벌써 많은 글이 올라왔는데요. 잠시 몇몇 글을 살펴보면 좋겠네요.

(나)

[시시콜콜 게시판]

- ↳ 15. 1인 가구가 33%나 된다는데, 제 주변에서는 1인 가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수님의 통계 자료는 최근의 것이 맞나요?
- ↳ 24. 이런 좋은 포털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에게 '○○시 1인 가구 포털'을 알리는 방법이 필요해 보여요.
- ↳ 38. 포털의 장점만을 소개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을 제시한 점이 유익했습니다.
- ↳ 45. 1인 가구 증가는 개인 중심의 사회로 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관련된 근거를 보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53. 포털 이용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 중에도 1인 가구가 꽤 있을 텐데요. 이분들을 위한 사용 방법, 활용 사례 등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40. (가)의 대담 참여자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는 시청자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 ② 사회자는 대담 참여자들의 발언 순서를 공정하게 지정하여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 ③ 사회자는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작 부분에 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④ 이 교수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박 교수는 방송 대담 화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시 1인 가구 포털'의 시행 주체를 다각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연결 어미 '-라면서'를 통해, 시청자가 1인 가구 구성원이라는 점을 가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 부사 '먼저'를 통해, '현황', '배경'에 관한 내용을 앞서 다룬 후에 다른 내용을 다룰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용언 '포함되다'를 통해, 학업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도 1인 가구로 집계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부사 '이러면서'를 통해, 앞서 다룬 내용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려 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보조사 '은'을 통해, 1인 가구 포털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 온 자신의 주장을 부각하고 있다.

42. (나)의 댓글 참여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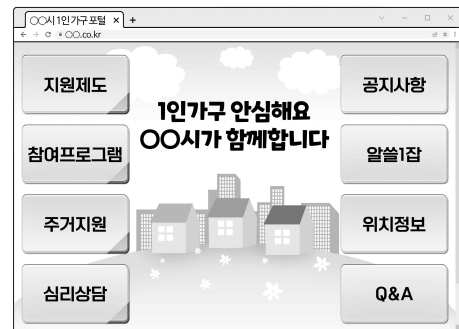
- ① 15번: 통계 자료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통계 자료가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군.
- ② 24번: 포털 홍보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군.
- ③ 38번: 포털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시 1인 가구 포털'에 대한 보완점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군.

- ④ 45번: 1인 가구의 증가 원인 진단과 관련하여, 주장의 타당성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군.
- ⑤ 53번: 포털 이용자의 연령별 특성과 관련하여, 포털에 제시된 정보 중에 불필요한 내용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군.

43. <보기>는 ㉠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시 1인 가구 포털'의 의사소통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1인 가구를 위한 정보를 한 눈에, '○○시 1인 가구 포털'



포털의 메인 화면은 지원제도, 참여프로그램, 주거지원, 공지사항, 알쓸1잡, Q&A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제도 메뉴는 주거,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 이용자들은 거주 지역, 연령, 성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분야별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여프로그램 메뉴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행사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합니다. 특히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내 위치 주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알쓸1잡 메뉴에서 알쓸1잡은 '알아두면 쓸만한 1인 가구 잡다한 지식'을 뜻하는 것으로, 1인 가구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모아 동영상, 카드 뉴스 등의 형태로 제공합니다. 관련 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Q&A는 포털 이용자가 직접 글을 올려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민감한 정보의 경우 비공개 메뉴를 활용할 수 있고,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할 경우에는 표시된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 ① '포털의 메인 화면'에서 크게 굵게 처리된 글자들이 좌우에 정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포털의 관리자가 매체의 형식을 파괴한 미적 요소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지원제도 메뉴'에서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포털의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내려받으면 다른 매체에도 공유됨을 알 수 있다.
- ③ '참여프로그램 메뉴'에서 지도 기반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포털의 정보 수용자가 매체에서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의 생산자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알쓸1잡 메뉴'에서 1인 가구 구성원에게 필요한 일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포털의 이용자가 시청각 자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Q&A 메뉴'에서 포털의 이용자가 직접 글을 작성하거나 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일방적 소통만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44~45] (가)는 팟캐스트를 재생 중인 휴대 전화 앱 화면이고, (나)는 (가) 화면의 제작 계획에 대한 논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부장: 지금부터 우리 회사가 맡은 앱 제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프로그램 제목은 '우주에 대해 알아보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업로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업로드하기로 했습니다. ㉠ 하지만 청취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추가 회차를 업로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 그렇게 합시다. 참, 예상 청취자는 어떻게 되죠?

과장: 네, ㉡ 예상 청취자는 우주에 대해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부장: 네, 좋습니다. 화면 구성의 특이점이 있나요?

과장: 화면 구성 요소 중에 ㉢ 회차는 회차 제목과 업로드 날짜만을 담되, 회차 순서는 최신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 댓글 소개창은 가장 호의적인 평가를 한 댓글들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네요. 끝으로, ㉤ 우주와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들도 소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장: 네, 그렇게 하죠.

44. (가)의 화면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면 앞 부분에 재생 방식 두 가지를 제시하여, 수용자가 재생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② 화면 중간 부분에 하이퍼링크를 제시하여, 생산자의 프로그램 제작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③ 회차에 별도의 기호를 사용하여, 회차별 듣기 목록 중에서 재생 중인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화면 하단에 재생 중인 회차를 표시하여, 수용자가 청취하고 있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화면 상단에 제목과 그림 이미지 자료를 제시하여, 수용자가 프로그램의 제재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5. (나)를 참고할 때, (가)의 제작 과정에서 고려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프로그램 개요'에서는 글자의 굵기와 기울기를 달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을 드러내야겠군.
- ② '프로그램 개요'에서는 예상 청취자의 특성을 담은 시각적 기호를 사용하여 제시함으로써 ㉡을 드러내야겠군.
- ③ '회차별 듣기'에서는 업로드된 회차에 대한 정보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을 드러내야겠군.
- ④ '청취 후기'에서는 청취자의 정량화된 반응을 별 기호의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을 드러내야겠군.
- ⑤ '함께 볼 만한 프로그램'에서는 유사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이 이미지 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을 드러내야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